한옥 디자인의 교과서, 윤증선생 고택 尹拯先生 故宅

9월 한옥디자인의 교과서, 윤증선생 고택
10월 한옥의 두 얼굴, 관가정과 향단
11월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건축, 계정과 옥류각
12월 도시로 간 한옥들, 전주한옥마을

글° 사진° 한필원° ATA 대표 ·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집은 나에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재산, 사회경제적 신분의 표지... 조선 중기에 완성된 집의 형식을 전통 한옥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집이 사람을, 사람이 집을 기억하여 집과 사람은 서로 정서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우리가 한옥에서 사람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녹음 자료를 정리하다가 들은 윤증선생 고택의 양씨 할머니 말씀은 이런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열아홉에 시집와 이 집에 산 지 65년 됐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대전 병원에 가서 두 달을 넘겨 있다가 그렇게 집에 오고 싶고 궁금해서 환장을 하것고, 병원에서도 아픈 건 둘째고 그저 집이 어떠냐고, 집이 어떠냐고 오는 사람마다 물었는디, 퇴원을 안 시킬라고 하는 것을 어거지로 사위들에게 나 오늘 꼭 퇴원하것으니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비밀로 집에 데려다달라고 했어.

사람과 집의 관계에 따라 한옥은 주인을 닮게 되고 그런 한옥들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개 당시 우리 조상들의 생활철학이었던 성리학에 바탕을 두고 지어졌기에 한옥은 일정한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1709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윤증선생 고택은 그러한 한옥 건축의 원칙을 더듬어 보기에 적절한 대상이다.

고택은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자리잡고 있다. 파평 윤씨의 세거지인 노성면과거의 나산 지역은 노론의 영수 송시열1607~1689로 대표되는 은진 송씨의 세거지인 회덕과 함께 당시 정치사상계 실세들의 본거지이다. 명재明齋 윤증1629~1714은 비록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았으나 소론의 지도자로서 그의 스승인 송시열의 노론과 대립하면서 정치 ·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고택이 자리잡은 곳은 예사롭지 않다. 고택은 뒤로 니산에서 내려온 옥녀봉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서쪽에는 노성향교가 동쪽 골짜기에는 노성궐리사가 있다. 궐리사闕里祠란 공자의 영정을 봉안한 영당을 일컫는다. 궐리사는 이곳과 수원화성궐리사 두 곳에만 남아있다. 고택의 앞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소나무 숲이 있고 이곳에는 명재 모친의 정려각이 건립되어 있다. 병자호란 중에 모친 공주 이씨는 피난처인 강화에서 자결하여 절개를 지켰는데, 당시 9살인 윤증은 한 살 위인 누이와 모친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한다. 이처럼 고택은 의미심장한 장소들로 둘러싸여 강력한 성리학적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

윤증선생 고택은 안채와 사랑채를 중심으로 곳간채, 안행랑채, 사당 등으로 구성된다. 고택에 접근하면서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앞에 너른 마당을 가진 사랑채이다. 그 오른편 뒤로 사당이 드러나고, 왼편으로는 중문간이 설치된 안행랑채가 물러나 자리하고 있으며 그 뒤쪽으로 안채가 숨어 있다. 여러 채와 그에 대응하는 마당 그리고 담과 돌계단이 지형의 흐름에 끼워 맞춰진 듯하다.

고택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안채와 사랑채를 여러모로 대비시킨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안채와 사랑채를 별채로 구성한 한옥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일반적으로 짐작하는 것과는 달리 이런 구성방식은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조선 중기에 성리학적 사고가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비로소 형성된 것이다. 조선 중기에 이르면 개방적 · 외향적 · 원심적 · 수직적으로 구성되는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 영역과 폐쇄적 · 내향적 · 구심적 · 수평적으로 구성되는 여성의 공간인 안채 영역이 생활공간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윤증선생 고택은 이러한 한옥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랑채는 사랑마당보다 2미터나 높은 두 단의 기단 위에 앉아 있다. 사랑채의 외곽으로 바깥행랑채와 솟을대문이 있던 과거에도 사랑채는 밖으로 자신감 있게 드러나 보였을 것이다. 사랑채는 한 가족만의 생활공간을 넘어서 마을이라는 공동체로 열린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사랑채의 지붕은 팔작지붕옆에서 보면 삼각형 모양의 합각이 있는 지붕이다. 위계가 높은 건물에 많이 쓰인 팔작지붕은 형태적으로 단정하고 완결적이다. 전통 건물에서는 지붕의 비중이 크고 실제로 무게도 대단했다. 그래서 지붕을 어떻게 지지하는가 하는 것이 전통 건축의 큰 과제였다. 그런데 윤증선생 고택의 사랑채는 이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답을 보여준다. 각각 누마루높이 들어올린 마루와 대청을 둠으로써 양쪽 모퉁이를 비운 것이다. 그 결과 육중한 지붕이 부유하는 듯 가벼워 보인다. 지붕의 처마 곡선이 휘어 올라간 것도 그러한 느낌에 도움을 준다. 비움으로써 무거운 것이 가벼워 보이는 대단히 역설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미학이다. 한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온돌과 마루를 한 채 내에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요소를 잘 조합하여 구성함으로써 공간의 쓰임을 다양하게 함은 물론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얻고 있다.

사랑채의 서쪽으로 안행랑채가 이어진다. 외부에서 안행랑채까지 아름다운 돌계단을 타고 오른다. 중문간에 이르러도 내외벽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채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안사랑채와 사랑채

▲▲대청에서 본 안마당 ▲안고지기

안채 영역으로 들어가면 정방형에 가까운 안마당이 있고, 낮은 기단 위에 대칭으로 구성된 ㄷ자의 안채와 일자의 안행랑채가 그것을 둘러싸고 있다. 사랑채가 수직적이라면 안채는 수평적이다. 대칭과 수평성으로 인해 안채 영역은 아늑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이다. 안채는 경상도 지방에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들과 견준다면 소박한 규모이다. 어떠한 장식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기술이나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절제를 미덕으로 했던 당시 예학자의 지행합일의 결과일 것이다. 명재의 청렴결백함은 그의 일생을 적은 '명재선생언행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외물外物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학문에 대해서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고 했다. 그러나 그의 집은 어느 문헌기록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명재의 생활방식과 품격을 느끼게 한다. 고택의 안채 대청에 앉으면 정신적으로 한없이 풍요로웠지만 물질적으로는 청빈했던 유학자의 삶이 전해지는 듯하다.

사랑채가 수직적이라면 안채는 수평적이다. 대칭과 수평성으로 인해 안채영역은 아늑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이다. 안채는 경상도 지방에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들과 견준다면 소박한 규모이다. 어떠한 장식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기술이나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절제를 미덕으로 했던 당시 예학자의 지행합일의 결과일 것이다.

ㄷ자형 안채의 가운데 부분은 8칸 넓이의 대청이다. 주택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청이 넓다. 대청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므로 너른 대청은 그만큼 제사가 많고 참여자가 많았음을 말해준다. 시원한 대청의 앞으로는 안마당이 있고 뒤로는 장독대가 있는 뒤뜰이 보인다. 이렇게 공간들이 시각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안채 영역은 아늑하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공간감을 지니고 있다.

윤증선생 고택은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하고 '주자가례'에 따라 사당을 안채의 동쪽에 두는 등 성리학적 규범을 엄격히 따르고 있지만 여러 곳에 치밀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서 더욱 흥미롭다. 하나의 예가 사랑방과 골방 사이에 있는 안고지기 곧 미닫이여닫이이다. 미닫이로 열고 다시 문틀과 문짝이 맞물린 상태로 여닫이로 열리는 문, 참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이다. 안채에서 준비된 음식을 골방을 통해서 사랑방으로 옮기려면 드나드는 문이 넓어야 하므로 이 같은 독특한 고안을 한 것이다. 네 짝의 미닫이여닫이문을 모두 열면 사랑방과 골방이 하나가 된다. 이때 문지방이 문짝과 같이 여닫혀야 하므로 세부처리에 조금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오늘날 건축디자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한옥을 보며 그런 집을 짓고 산 성리학자들은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상당히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정신을 가졌으리라 생각해본다. 실제로 명재는 실질적 학문과 사상을 추구하여, 양명학을 정립한 정제두 같은 학자를 길러냈다. 또한 그는 천문관측 기구인 혼천의를 직접 제작하여 과학정신을 실천하기도 했다.

◈ 10월호에는 **'한옥의 두 얼굴, 관가정과 향단'**이 소개됩니다.